

생성형 AI 시대의 BI 전략 차별화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이끈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본 PDF 문서는 IDG Korea의 자산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IDG Korea의 허락 없이 PDF 문서를 온라인 사이트 등에 무단 게재, 전재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생성형 AI 시대의 BI 전략

차별화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이끈다

정경후 | 스트래티지코리아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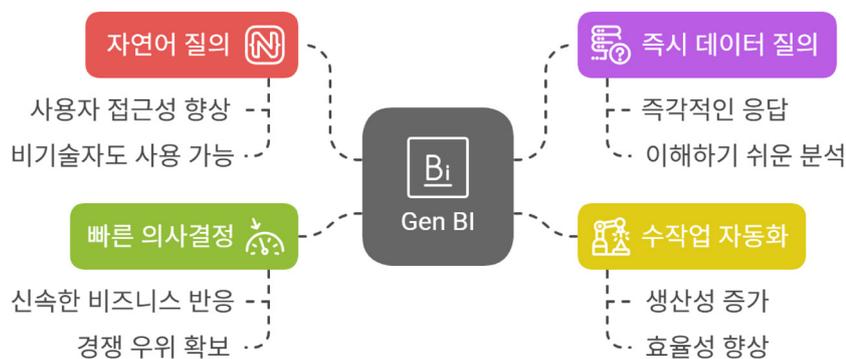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업은 '느낌'이 아닌 '수치'를 믿어야 한다. 이때의 수치는 곧 데이터를 말한다. 그러나 기업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수준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단계로 도약하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수반된다.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에 접근하고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이터 중심 기업 문화를 구축하기란 말처럼 쉬운 작업이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에 대한 법적 규제도 엄격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 BI) 플랫폼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

데이터 분석의 장벽을 허문 생성형 AI

전통적인 BI 프로세스 분야에도 AI라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AI 기반 분석은 기업의 요구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고 맞춤형 전략 수립을 지원해 경영진이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Gen AI - BI의 미래



솔루션을 학습하고, 수동으로 생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던 기존 방식은 많은 시간과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소화할 수 있는 인력도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생성형 AI 기반의 챗봇을 구축한 기업이라면 이제 고객과의 회의 전에 궁금한 내용을 챗봇에 묻고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 실제 필요한 데이터와의 거리가 좁혀진다는 의미다.

직원 입장에서도 별도의 자격증이나 학습 없이 누구나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이 크다. SQL을 배우지 않아도, 복잡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익히지 않아도, 자연어로 질문만 던지면 된다. 생성형 AI는 데이터 활용이라는 기술 장벽은 물론, 사람간 커뮤니케이션 장벽도 동시에 낮추고 있다.

특히 AI를 도입하면 속도와 난도 면에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된다. 생성형 AI는 정확성뿐 아니라 인지적 역량과 유연한 사고, 스마트한 응답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기존 데이터 분석 역량이 결합하면 훨씬 강력한 시너지가 창출된다.

AI 도입에 따른 현실적 과제들

그러나 기업의 고민은 먼저 모든 구성원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서 비롯된다. BI 관련 기술과 플랫폼의 접근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기업 구성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육성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래부터 데이터를 다루는 부서에 BI 도구를 적용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고객 대응이나 재무 회계 부서 등 모든 구성원이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발견하려면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한편 생성형 AI가 기업 환경에 빠르게 녹아드는 가운데, 기업의 의사결정자와 IT 관리자는 데이터 보안과 실제 활용 가능성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가장 큰 우려는 데이터 보안이다.

특히 “외부 AI에 기업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크다. AI가 기업 데이터를 학습시키거나, 데이터가 외부 시스템에 잔존할 수 있다는 의심 역시 도입 결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업계 전반에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 배경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선 데이터를 직접 확인할 필요성을 직원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는 과정이 까다롭다. 둘째로는, 설령 필요성을 실감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직원에게는 여전히 데이

생성형 AI로 데이터 분석이 어려운 이유



터를 활용할 시간과 역량이 부담스럽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처리를 주 업무로 삼지 않는 기업 구성원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일 자체가 여전히 큰 과제인 셈이다.

기존 BI 시스템에 생성형 AI 기능을 단순 추가하는 접근에는 한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AI에게 질문을 입력하더라도 실시간 데이터나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부정확한 결과를 반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업 내부 데이터에 최적화된 AI 에이전트가 아닌, 직원이 직접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형태의 플랫폼에서 이 같은 제약은 더욱 두드러진다.

아직 생성형 AI는 환각 현상(Hallucination)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정확성 측면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단순 정보 검색과는 달리, 기업에서 정밀 분석 목적으로 AI를 활용할 경우 분석 결과 신뢰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결국 기업에 필요한 BI 도구는 AI 기반의 정확한 분석 역량과 데이터 중심 문화 조성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형 BI 플랫폼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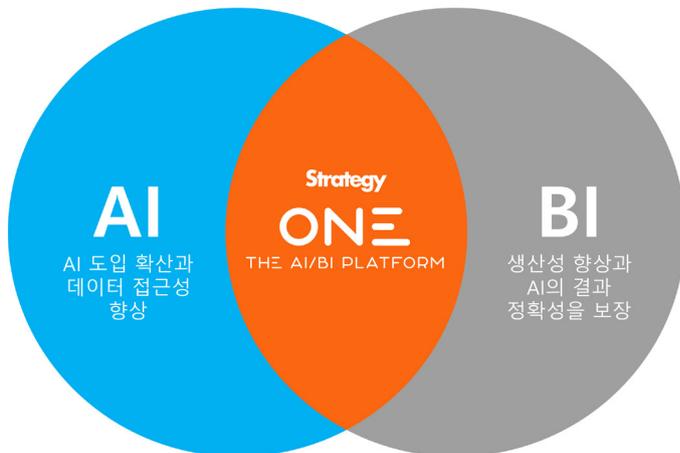
구조적 통합에 주목한 스트래티지 원

지금까지의 한계와 우려를 인식한 기업은 이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바탕으로 설계된 BI 플랫폼에 주목하고 있다.

스트래티지(Stratgy)는 AI를 통합해 기업의 데이터 접근성과 분석 역량 개선을 지원하는

올인원 분석 플랫폼 스트래티지 원(Stratgy One)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스트래티지 원은 기존 스트래티지 BI의 시맨틱그래프와 생성형 AI를 절묘하게 결합하여, AI의 환각 현상을 해결하고 항상 정확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생성형 AI 서비스에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것이 아닌, 메타데이터 수준의 정보만 일시적으로 사용, 세션이 종료되면 관련 데이터를 자동으로 삭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데이터 보안의 문제도 해결하였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외부로 넘기지 않아도 분석이 가능한 구조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AI + BI : Better together



스트래티지 원의 기술적 기반은 안전 확보에 그치지 않고, 챗봇처럼 쉬운 인터페이스와 자연어 기반의 질의 응답으로 누구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팀즈나 기업 메신저 환경에서도 대화형 요청만으로 분석이 실현되는 구조를 제공한다.

이제 데이터는 더 이상 복잡한 BI 도구를 다루는 소수 인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업무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비되고 활용되는 진짜 자산으로 기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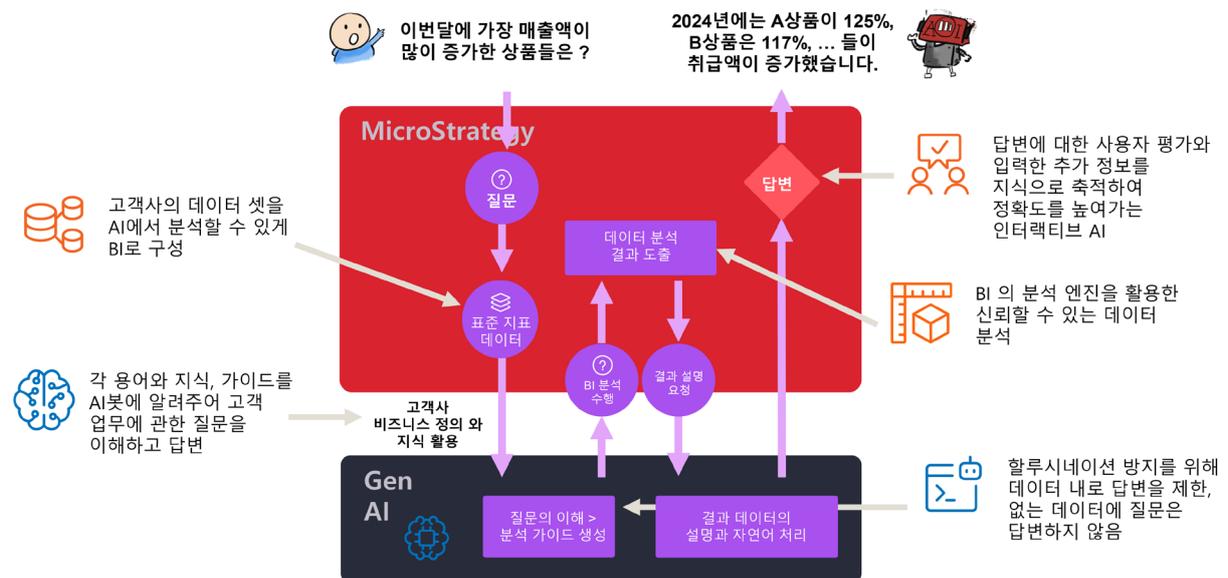
어디서든 가능한 지능형 데이터 처리... '인텔리전스 에브리웨어'

전환의 진입 장벽이 낮아 기존의 BI 도구를 사용하던 기업이 스트래티지 원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분석과 보고, 시각화, 대시보드 같은 기존 기능을 그대로 흡수하면서도 생성형 AI 기반의 최신 분석 기능까지 통합해 제공하기 때문이다.

스트래티지는 모든 사람이 정보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하고 기업 성과로 연결하는 '인텔리전스 에브리웨어(Intelligence Everywhere)'라는 비전 하에서 생성형 AI 통합을 진행했다. 스트래티지 원을 사용하는 기업은 실질적 활용이라는 장벽을 넘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인사이트를 확보하게 됐다.

대시보드나 시각화 기능은 이미 시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도된 바 있지만, 스트래티지 원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아키텍처에 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 기반 분석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모델에 업로드하고 AI가 분석해 결과를 도출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정에는 몇 가지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

정확도와 신뢰를 가진 Strategy Gen BI



첫째, 데이터를 외부 모델에 전달해야 하므로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데이터를 AI에 전달한 후에도 정확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추가 입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오해나 왜곡이 생기기 쉽다. 셋째, 분석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실시간 결과를 얻기 어렵거나 반복적인 수작업이 요구된다.

스트래티지 원에서 AI는 기업 내부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접근하고 그 분석질의를 해결하기 위한 쿼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생성형 AI에 단순 질문을 던지는 구조와 달리, 전문형 AI 에이전트인 스트래티지 원은 기업 데이터의 구조와 맥락을 이해하고, 사용자 요구에 맞는 정확하고 실용적인 답변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AI 기술을 단순 추가한 것이 아니라, 내부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교하게 AI를 통합한 활용 모델로 기능한다.

기업 내부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는 구조를 채택하므로, 사용자가 추가 데이터를 업로드할 필요 없이 즉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기업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할 수 있는 기술 구조로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생성형 AI가 직접 데이터를 연산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대신 스트래티지 원이 생성형 AI의 분석 실행 도구를 활용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스트래티지 원은 푸시다운 계산(Pushdown Calculation)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데이터를 외부로 이동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직접 연산을 수행한다. 데이터 유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고성능 분석이 가능해지는 방식이다.

질의 처리 과정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인 생성형 AI 솔루션은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한 후, 이를 처리하기 위해 직접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형태다. 반면, 스트래티지 원은 사용자의 질의와 메타데이터 항목만 생성형 AI에게 전달한다. 생성형 AI 엔진은 이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분석할지를 판단해 지침을 반환하고, 실제 연산은 스트래티지 원이 수행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이번 달에 매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제품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경우, 스트래티지는 자체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월 및 금월 매출 데이터를 수집하고, 증감율을 계산한 뒤 상위 항목을 선별한다. 생성형 AI는 이 결과를 받아 자연어 형태로 사용자에게 설명해주는 역할만 맡는다.

스트래티지 원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

첫째, 데이터를 외부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 리스크가 없다.

둘째, 연산은 분석 엔진에서 수행되므로 계산 오류나 SI 환각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분석 결과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도 스트래티지의 설정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만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이 스트래티지만의 독창적 시도는 아니다. 그러나 기존 BI 도구 기반 접근 방식이 데이터를 직접 이동시키는 구조에 머무르며 각종 문제를 야기하는 데 반해, 스트래티지 원은 아키텍처 차원의 근본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확보했다.

NL2SQL의 한계 명확... 메타데이터 기반 접근이 대안

NL2SQL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고려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스트래티지 원의 아키텍처와 비교할 때 NL2SQL을 활용한 방식은 중대한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LLM), 예컨대 챗GPT와 같은 도구는 언어 이해와 응답 능력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연산 처리에는 취약하다.

특히 생성형 AI 엔진이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나 설계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 단순한 쿼리를 넘어서 데이터웨어하우스 모델 기반의 복잡한 데이터 요구사항을 처리하려면 고도의 쿼리 엔진 논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성형 AI는 설계 맥락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쿼리를 생성하거나 엉뚱한 집계 결과를 반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기존 구조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산 신뢰성, 데이터 전송 위험, 보안 관리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단순히 “질의를 던지고 답을 받는 구조”는 누구나 구현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핵심 기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무에 적용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사례로 은행의 계좌 모델을 들 수 있다. 사용자가 “지난달 말 계좌 잔고를 알고 싶다”라고 자연어로 입력할 경우, 올바른 쿼리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짜(말일)의 잔고 값만 조회해야 한다. 그러나 생성형 AI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전체 월 데이터를 단순 합산(SUM)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사실과 다른 과도한 수치를 받아 보게 되며, 이 결과가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오류를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이처럼 생성형 AI 기반 자연어 질의는 겉으로 보기엔 ‘쿼리 입력도, 응답도 자연스럽다’는 인상을 주지만, 데이터 신뢰성과 정확성 측면에서는 본질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추가적인 미세조정이나 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활용해 모델에 DB 구조나 업무 개념을 반복 학습시키려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복잡성과 유지 비용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데이터 접근 권한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일반적인 생성형 AI 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AI 모델에 업로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안 통제가 어렵다. 예컨대 특정 사용자는 자신의 부서 데이터에만 접근해야 하지만, 전체 데이터를 AI에 넘긴 경우 AI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응답을 생성하게 된다. 이로 인해 데이터 권한 관리가 무너지면, 보안 침해 위험도 높아진다.

스트래티지 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메타데이터를 중심으로 AI 분석을 실행하는 아키텍처를 도입했다. 이미 스트래티지 원 내부에 정의돼 있는 정형화된 데이터 모델과 계산 로직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생성형 AI가 쿼리를 직접 생성하지 않더라도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스트래티지 원은 생성형 AI 기술의 외형적 구현보다는 실제 분석의 신뢰도, 연산 정확도, 사용자 맞춤형 보안 체계 구축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한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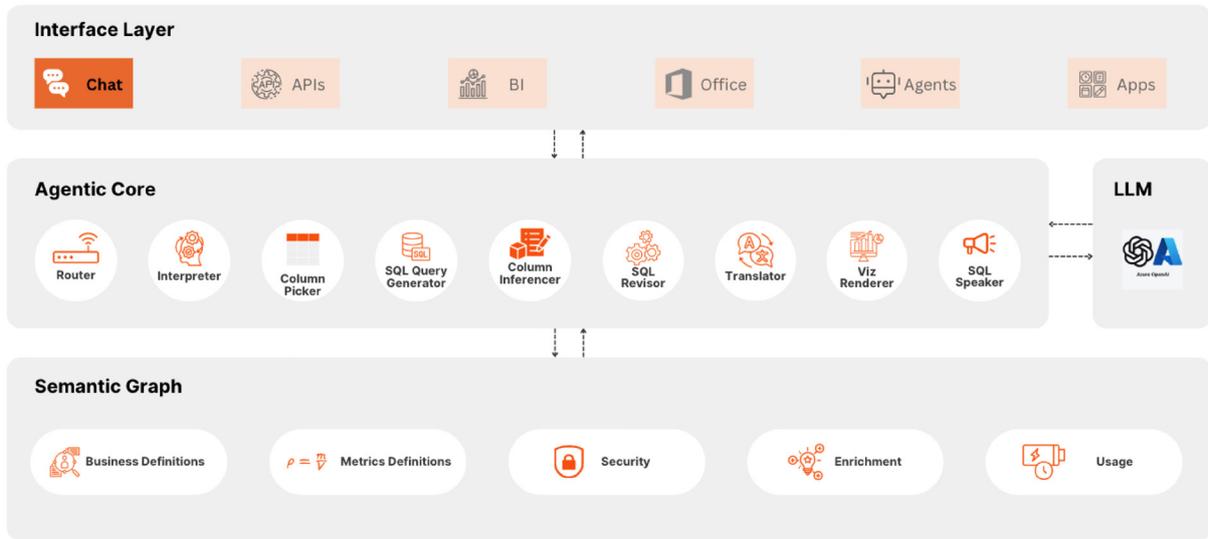
**‘오토 2.0’의 진화…
AI 분석 자동화에서
자율분석(Auto
Analytics)으로**

스트래티지의 생성형 AI 분석 플랫폼 ‘오토 1.0’은 지난 2023년 출시돼 높은 정확도와 성능을 장점으로 많은 글로벌 고객을 확보했다. 차세대 버전인 오토 2.0은 기존 구조를 에이전트 기반 아키텍처로 전환해, 챗봇형 AI를 넘어 자율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구현의 핵심은 AI 아키텍처의 전환이다. 오토 2.0은 이전보다 더 정교하고 능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에이전트형 기술 기반을 갖췄으며, 이러한 구조는 향후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 출시된 1세대가 정확도와 응답 성능 면에서 성과를 입증하며 글로벌 고객을 확보한 데 이어, 오토 2.0 버전은 기능과 구조 양면에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뤄졌다. 핵심은 에이전트 AI 기반 구조다. 여러 AI 에이전트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사용자 질의에 더 정교하고 맥락 있는 답변을 제공하며, 다양한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맞춰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 흐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보다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더욱 자연스러워졌으며, 응답 과정에서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인사이트 중심의 답변을 제공하는 점도 특징이다.

Strategy Gen BI의 레이어들



‘자율형 애널리틱스(Autonomous Analytics)’ 비전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서, 오토봇 2.0은 향후 ▲사용자 대신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전문 분석 에이전트 ▲이상 징후를 능동적으로 감지하고 결과를 자동 푸시하는 자율 분석 프로세스 등으로의 확장을 목표로 한다.

또한 스트래티지는 오토봇 2.0의 차별점으로 시맨틱 레이어와 메타데이터 설계의 고도화를 강조하고 있다. AI 분석 정확도의 본질은 UI가 아니라, 백엔드에서 작동하는 메타 구조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 응답을 넘어, 데이터 준비부터 모델 구성까지의 흐름을 시가 전체적으로 보조하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오토2.0과 함께, 스트래티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 차별화 요소인 ‘시맨틱 레이어’의 가치를 한층 강화하고, AI를 이용하여 그 생성 과정을 가속화하는 모자이크 스튜디오(Mosaic Studio)를 공개했다. 일반적인 AI 분석 도구들이 프론트엔드 응답만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스트래티지 원은 “분석의 정확도는 백엔드 구조인 메타데이터가 결정한다”라는 기조를 따르고 있다. 스트래티지는 이 구조적 중요성에 주목해, 생성형 AI와 분석 플랫폼을 결합한 오토 2.0과 시맨틱 모델 자동화 도구인 모자이크 스튜디오를 병행 개발·운영하고 있다.

실제 프로젝트나 제품 구현 과정에서 시맨틱 모델 구축은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계다. 특히, 기업마다 상이한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 구조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설계 역량과 인력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UNIVERSAL INTELLIGENCE LAYER



모자이크 스튜디오는 AI를 통해 데이터 연결부터 모델링, 외부 활용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플랫폼이다. 사용자는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업로드하지 않고도 원천 시스템과의 연결을 통해 시맨틱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이후 이 모델은 외부 애플리케이션에서도 SQL이나 REST API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기존에는 데이터 모델링이나 시맨틱 레이어 구축이 기술적으로 복잡해 비즈니스 유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모자이크 스튜디오는 이 전 과정을 AI가 지원하도록 설계돼, 데이터 구조 분석, 모델링 전략 제안, 클렌징 작업, 피벗 테이블 구성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사용자에게 적절한 제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비전문가도 쉽게 데이터 모델을 구성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스트래티지는 모자이크 스튜디오를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핵심 기반으로 제시하고 있다. 챗봇 인터페이스나 프론트엔드 UI의 정교함 못지않게 정확한 시맨틱 모델 설계가 전체 AI 서비스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 프로젝트 수행 시 모델링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차지하는 고비용 고난도 작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영역을 자동화하는 모자이크 스튜디오의 도입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플랫폼은 시맨틱 레이어 내에 다양한 비즈니스 로직을 내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완성된 모델은 유니버설 액세스 기능을 통해 내부 애플리케이션뿐 아니라 외부 시스템에서도 일관되게 활용 가능하다. 이처럼 AI의 보조를 통해 비즈니스 유저가 손쉽게 맞춤형 분석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자이크 스튜디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는 기업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모자이크 스튜디오는 구축된 모델이 특정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외부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유니버설 액세스'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생성된 시맨틱 레이어를 SQL 쿼리나 REST API 형태로 외부 시스템과 연동해 활용할 수 있다. 이는 BI 도구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분석 환경에서도 동일한 데이터 정의와 논리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요소다.

모자이크 스튜디오는 2025년 6월 정식 출시 예정이며, 현재 프리뷰(Preview) 단계에서 고객 피드백을 반영한 최종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AI 제안 기능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시맨틱 모델을 구축하고 다양한 환경에 확장 적용할 수 있고, 기술 격차 없이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환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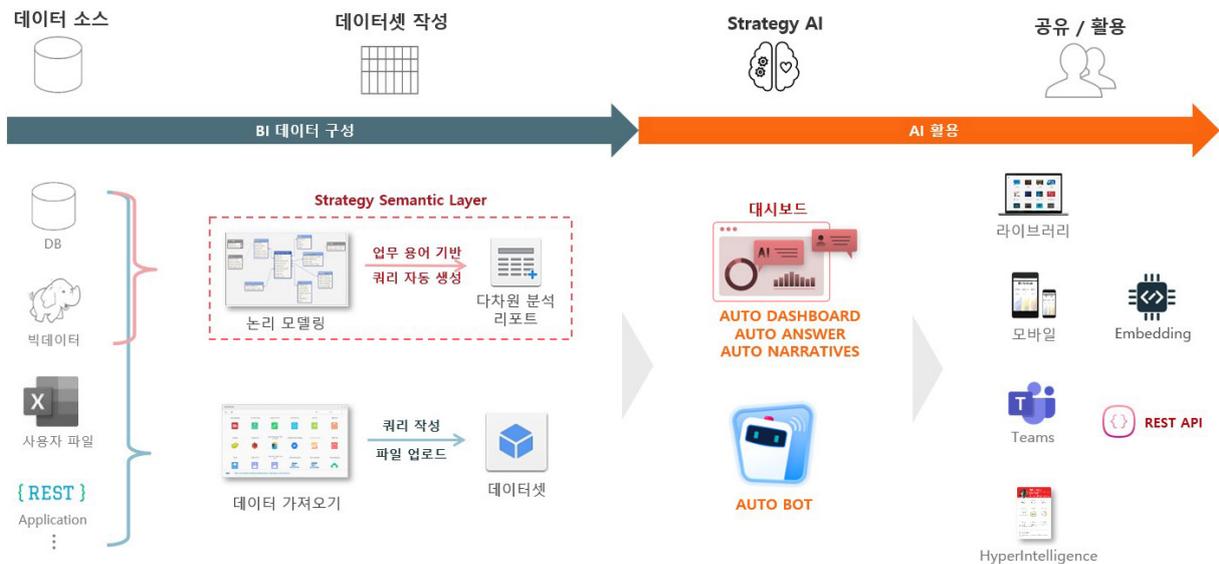
스트래티지 원의 도입 장점 3가지

스트래티지 원을 도입했을 때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전사 데이터 플랫폼 관리의 운영 및 비용 효율성 향상이다. 스트래티지는 사용자 질의에 대해 고성능 SQL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엔진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AI의 분석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적 요소에 그치지 않고, 수작업으로 SQL을 작성하던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분석 입력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특히 대

Strategy AI 구성과 활용

Strategy AI는 준비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대시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AUTO DASHBOARD, AUTO ANSWER, AUTO NARRATIVES와 AUTO BOT을 제공



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분석 환경에서 성능 최적화 측면에서도 강력한 장점을 발휘한다.

두 번째는 전사 차원의 지표 일관성 및 유연한 관리 체계다. 조직 내에는 데이터 활용 수준이 다양한 인력이 존재한다. 고급 분석이 가능한 파워 유저부터 단순 보고서만 확인하는 임원진, 특정 업무 중심의 사용자까지 요구 사항이 각기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각 사용자층에 맞는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모델을 따로 구축해야 하지만, 스트래티지 원은 하나의 통합 모델을 기반으로 각 사용자에게 맞춤형 뷰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 덕분에 전사적으로 동일한 지표 정의를 공유할 수 있으며, 지표 기준이 변경될 경우 중앙에서 한 번의 수정으로 전체에 반영되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금융권에서는 이자율 지표가 부서마다 수십 가지 버전으로 존재하고,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전수 수정이 필요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모든 BI 기능을 아우르는 ‘올인원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스트래티지 원은 리포트, 대시보드, 시각화 등 BI의 주요 기능을 빠짐없이 지원한다. 사용자는 각자 필요한 기능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외부 툴 연동 없이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모든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강화된 생성형 AI 기능을 통해 분석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면서 사용자 만족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스트래티지 원은 기술적 정교함과 운영 효율성, 사용자 경험을 모두 고려한 구조로, 기업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AI와 BI, 지금이 도입
적기**

시와 예측 분석 기술은 BI와 결합해 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래티지는 생성형 시와 분석 솔루션을 단지 마케팅 수단이 아닌, 실제 기업에서 작동하는 기술로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다. 기능 나열에 그치지 않고, 현재 실사용 중인 고객 사례와 검증된 분석 성과를 기반으로 실제 가치를 제공한다.

특히 오토 2.0은 기존 스트래티지 기반의 안정적이고 검증된 아키텍처 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생성형 AI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보안, 정확성, 성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장한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스트래티지는 조직 규모에 따라 선택 가능한 유연한 도입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환경에 최적화된 AI 분석 도입을 지원한다. 스트래티지 MCE(Managed Cloud Environment)는 높은 보안성과 거버넌스가 요구되는 대규모 조직에 최적화된 패키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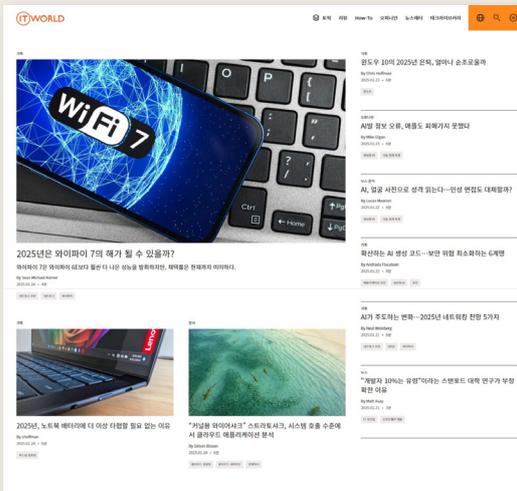
완전히 분리된 독립 운영 환경을 통해 최고의 보안 및 신뢰성을 보장한다.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도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엔터프라이즈급 AI 분석 환경을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에 최적의 선택지다.

새롭게 출시된 스탠더드 에디션(Standard Edition)은 중소기업 또는 부서 단위의 조직에서도 경제적인 예산으로 AI 분석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합리적 구성이다. 도입 초기에는 비용 부담 없이 AI 분석 기능을 실무에 적용해 볼 수 있으며, 필요 시 MCE 환경으로 손쉽게 확장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성장 단계에 있는 조직에도 유연한 확장성과 실용성을 제공한다.

BI는 이제 ‘단순 데이터를 확인하는’ 용도를 넘어 데이터 기반 경영 전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I 플랫폼 도입은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를 활용해 실제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전반에 데이터 중심 문화를 확산하는 올바른 첫걸음이 될 것이다.

ITWORLD

테크놀로지 및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위한 최적의 미디어 파트너



기업 IT 책임자를 위한 글로벌 IT 트렌드와 깊이 있는 정보

ITWorld의 주 독자층인 기업 IT 책임자들이 원하는 정보는 보다 효과적으로 IT 환경을 구축하고 IT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입니다.

ITWorld는 단편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과 실제 사용자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설문조사와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에 활용할 수 있고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내용과 형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IDG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된 방대한 정보와 전 세계 IT 리더들의 경험 및 의견을 통해 글로벌 IT의 표준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